

2026학년도 대수능 국어 영역-독서 문제 풀이 후 총평 노트

개인적 체감 난이도

1위 칸트>>>>>>>>>>2위 채무 보증 3위 열팽창 4위 독서론

지문별

[1-3] 독서론

걸린 시간: 5:27.54, 틀린 문제 0

- 그동안 내가 풀어 왔던 독서론보다는 조금 어려웠으나 결국 독서론은 독서론
- 해독/언어이해 관점만 잘 나눠서 지문에 나온 예시끼리만 매칭시키면 okay

[4-9] 사회문화(법) - 보증/채무[주제 통합]

걸린 시간: <보기> 제외 13분, <보기> 포함 15분, 틀린 문제 2(6번, 7번)

- 내가 법 지문에 그렇게 심하게 특출나게 약한 건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미친 듯이 어렵다? 이런 지문은 아니었던 듯
- 내 스스로의 직관력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 주었지만, 직관에 대한 과한 의존 및 안심은 금물이라는 것을 알려준 지문
- 6번, 7번 모두 틀린 이유가 사실상 같다고 보임. 내가 7번 문제 ④번 선지를 판별할 때 연대 보증인이 하는 보증 계약이 채권자랑 하는 것인가, 주채무자랑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곧바로 (나) 1문단으로 돌아갔는데 “채권자와는 보증 계약을 하고”까지는 맞다고 판별했으나, 왜인지 모르게 뒤에 “채무자와 하는 연대 보증 특약”을 의심 없이 바로 찍고 ⑤번 선지를 안 보고 넘어감. 틀리고 나서 곧바로 ④번 선지의 당사자 관계가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그제서야 알아차렸고, (나) 지문 3문단 가보니까 ‘연대 보증 특약’은 ‘보증 계약’에 포함되더라....라는 것을 봄. (다른 포인트와는 달리 이건 지문 읽으면서 바로 집중하면서 캐치하지 못함. 내가 그래도 좀 집중해서 포인트 잡고 읽었던 부분은 어디에서 집중했었는지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기억을 하는데 나의 지문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이슈 때문에 저 부분에 펜 터치도 좀 약했고, 인지를 잘 못했음)
- 6번 문제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집중력이 확 떨어졌던 것으로 보임. 조금 refresh를 하고 틀리고 난 이후 보니 ②번 선지의 “보증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 = 주채무자임을 선지만 읽고 알아채서 약간 허무했음. 처음에 문제 풀 때 사고과정을 복기해 보자면 처음에 (나) 지문 1문단을 읽으면서 ㉠의 중심 point가 유상 계약의 정의는 “당사자 간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므로 “서로” 이 단어에 어겨진다고 보았고, ㉠에서 “서로 대가를 주고받음”을 만족시켰지만 유상 계약이 아니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그 이유가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여기에서 “당사자 관계”를 직관적으로 알아챌어야 했고, 처음 읽을 때 그 전전 문장을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했음. (나) 지문 1문단 4번 문장(보증이 성립하려면 ~ 필요하다.)에서 관형절을 이용해 정의된 보증 계약의 핵심은 당사자가 “채권자와 보증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6번과 7번 문제에 문제화되었음. 사실 더 아쉬운 것은 아까 처음 풀 때 7번 문제 ④번 선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6번 문제에 그걸 적용할 생각은 못했음.
- 그 외 5번 문제, 8번 문제는 비교적 쉬웠음. 명시적으로 지문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5번 문제 ④번 선지에 그대로 나와 있었고, 8번 문제 ③번 선지는 직전에 (나)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왔으므로 선지 내용이 정확히 지문과 반대라는 것을 바로 알아챈.

[10-13] 과학기술(물리) - 열팽창

걸린 시간: <보기> 제외 10:15, <보기> 포함 12:52

틀린 문제 0

- 은근 많이 나오는 비율, 비례관계만 잘 잡아 줬으면 26수능 독서에서 가장 쉬웠던 세트라고 생각됨.
- 그냥 진짜 “선형 열팽창 계수”에서부터 등장하는 비례관계만 집중해서 잘 읽고, 각 개념별로 그때그때 이해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비례관계가 몇 문단에 있었는지만 잘 찾아줬으면 관참음(솔직히 12번이 그 정도로 어려웠나? 하면 아니라고 생각)

[14-17] 인문예술(철학) - 칸트

걸린 시간 16:15.97, 틀린 문제 2(16번, 17번)

- 지문 자체는 헤겔 급은 아니어도 굉장히 어려웠음(지금까지 봤던 지문 중 추상성이 역대급으로 강함)
- 솔직히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의 핵심 입장만 딱 잡고 지문 왔다갔다 하면서 풀었으면 문제도 다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16번에서 ②번 선지 보고 이거 선후 관계 왜곡의 가능성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5문단에서 “마찬가지로” 한 단어 땀에 낡임
- 칸트가 “통시적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닌, 어떤 전제 하나만 선행되면 받아들일 수